**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11, 이사야. 22-23**

**© 존 오스왈트(John Oswalt)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이 John Oswalt 박사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3장 11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 지난 주에 발생한 비극을 생각할 때, 오 주님, 이번 시즌에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당신이 이 비극적이고 망가진 세상에 오셨고, 우리 중 하나가 되기로 선택하셨으며,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결국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한 번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사야가 거의 30세기 전에 말하고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녁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주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

괜찮은. 우리는 오늘 밤 열방에 대한 마지막 두 가지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그를 신뢰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요성을 이해하면서 종의 첫 단계를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신뢰에 대한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의 기본적인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의도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모른다면 당신은 항상 베팅을 헤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항상 지금 그게 나에게 좋은지 아닌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신뢰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말했듯이 인류를 믿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의 1장과 2장의 시작 부분에서 사람들이 요한이 누구인지, 그가 행한 일에 너무 압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장 끝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에 대하여 증언할 사람이 필요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근본적인 선함에 대한 설탕 코팅된 비전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 생각엔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면에서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를 위해 죽어? 예. 우리를 사랑 해주세요? 예.

하지만 우리를 믿으세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인간 국가를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들의 영광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13장과 14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은 실제로 인간의 피조물의 능력과 영광에 관한 모든 영광스러운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어가는 동안 여러분도 영광이라는 단어에 눈을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족들의 영광을 믿지 마십시오. 민족들의 자존심을 믿지 마십시오. 모압 15장과 16장.

나라들의 정치적 책략을 믿지 마십시오. 17장과 18장에서 보았듯이, 17장에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열국이 끓어오르는 가운데 먼 남쪽 구스에서 바벨론까지 여기 저기로 사자를 보내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님. 특히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이집트에서 볼 수 있듯이 열방의 종교, 자원, 지혜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끝냈던 21장은 상업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막을 오가는 무역, 국가간의 상업.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영. 정치적 계획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영. 종교, 자원, 지혜는 무엇입니까? 영.

상거래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 그리고 0을 몇 번 곱하든 상관없이 답은 같습니다. 영.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두 나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매우 놀랍습니다.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신탁.

잠시 후에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유다. 유다.

잠깐만요, 이사야, 여기서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유다가 신뢰하고 싶어할 만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유다를 이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너희 민족은 다른 민족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국가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야가 살아남아 이 이후에도 더 이상 그의 책을 썼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인기 경쟁이 있었다면 그는 확실히 이 시점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곳을 비전의 계곡이라고 부를까요? 그런 문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근시안적이기보다는 자신이 있는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근시안적이며 정상에 서서 그들 주변의 큰 그림을 찾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좋아, 높은 곳에 있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곡 아래에 있어서 단지 짧은 시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패트리샤, 당신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나무가 없어 숲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른쪽.

나무에서 숲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나는 터널 비전 같은 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네, 터널 비전입니다. 예, 예, 하지만 그것은 모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연합감리교회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상과 계곡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비전의 산, 그렇습니다.

근시안의 계곡,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전의 계곡?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매우 냉소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너무 많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면서 그러한 진술을 통해 그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세 구절에서 발견되는 환희는 그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는 제가 배경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701년에 아시리아 황제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강력한 도시, 즉 46개 도시를 본질적으로 점령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명만 빼고요. 하나는 라기스인데, 라기스는 여기 해안 평원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이다.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면 라기스를 거의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쪽으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 큰 요새를 떠난다면, 라기스는 매우 큰 요새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떠난다면 군대는 나와서 그의 공급 라인을 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반면에 만일 그가 그것을 취한다면 예루살렘의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아끼기 위해 라기스를 공격할 때 그의 장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월 37장에서 장교가 항복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마침내 함께 모여서 나오며, 장교는 산헤립을 돕기 위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마침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이 시끄러운 사람은 물러나야 했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산헤립이 어느 날 밤 그의 병사 185,000명을 잃은 이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은 기쁨일 것입니다. 응, 나라가 멸망했어. 라기스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의 군대를 잃기 전에 라기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에는 예루살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우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 나라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다른 모든 도시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둘 중 하나, 즉 랍사게의 철수나 산헤립의 철수가 아마도 기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너희가 다 지붕에 올라갔다니 무슨 말이냐? 당신은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도시.

환호하는 마을. 당신은 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신들의 지도자들은 함께 도망쳤습니다.

활이 없으면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발견된 너희는 모두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나는 그가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대환희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는 멀리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단지 즉각적인 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는 아니,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당하는 일에 대해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물리적 파괴와 영적 파괴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그들이 시대적 승리라고 부르는 실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끔찍한 승리입니다. 내가 기억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명백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은 그리스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5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칭호 중 첫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5절, 12절, 14절. 14절에 두 번, 15절에 한 번, 그리고 25절에 다시.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호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군대.

선지자들이 특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할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호스트는 스타입니다. 자, 우리는 물리적인 별이 있고 상징적으로는 영적인 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지만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월 교리의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교도 세계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별은 신이다. 신들은 별이다. 그들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호스트는 모두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다시 chutzpah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츠파입니다. 이교도들에게 당신들이 숭배하는 모든 신들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나중에 40장에서는 그분이 그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야훼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번역된 야훼(Yahweh)의 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주(Lord), 야훼(Yahweh), 하늘 만군의 하나님. 이것이 그가 말하는 것의 완전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는 누구시냐? 그분은 하늘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장거리 구절 5, 6, 7을 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소동과 짓밟고 혼란의 날이 있으리니 성벽이 무너지며 산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라.

엘람 곧 페르시아는 병거와 기병으로 화살통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남부 바빌론인 Kier는 병거가 가득 찬 계곡 중 당신이 선택한 암낙타를 발견했습니다. 기병들이 성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유다의 덮개를 벗겨 냈습니다. 이사야는 150년 후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마지막으로 멸망시킬 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 너희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새싹이 있지만 어디로 향하는지 알기 때문에 합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긴 얼굴로 돌아다녀야 하고 누군가 파티를 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고 말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우리의 접근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최종 판단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괜찮은.

신뢰, 기쁨.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추구해 봅시다. 어떤 의미에서 기쁨이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끝을 안다는 것은 기쁨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은 끝이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음-흠, 음-흠.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찔한 기쁨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망각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어지러운 일은 잊어버리고 충분히 취하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세상의 망상적인 기쁨을 말하고 싶습니다. 평화로운 기쁨? 기쁨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니다.

아니, 기쁨과 사역입니다. 기쁨과 사역, 어허. 현실적인 기쁨? 희망 속에 기쁨을 누리세요.

희망의 기쁨? 예, 그렇습니다. 우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약을 복용하는 것뿐입니다. 일종의 Pollyanna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확신과 그가 우리 삶에서 행한 일, 그리고 그의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단지 확신, 현실적인 기쁨. 예?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에 약간의 슬픔이 있다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람들이 살던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에 대해 당신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는 끝이 무엇인지 봅니다.

제 생각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가 이르시되 딸 내 백성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라 하셨느니라 응,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이사야 자신은 완전히 평안과 기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이 사람들을 보고 있고 그들도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그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로와 확신과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꽤 좋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지, 예,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전쟁에서 장군이 자신의 깃발이 이미 목표물에 꽂혀 있다는 것을 알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병력과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예, 예.

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거의 알고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응, 응, 응. 이것이 우리 나라를 포함해서 관련이 있나요? 예, 예, 내 생각엔 그가 '나는 이 파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는 기본적으로 실제 상황을 부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는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특히 성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좋아, 계속해서 노력하자.

8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특이하므로 여러분 모두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개인입니다.

당신은 숲의 집의 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삼림의 집은 백향목 기둥으로 가득 찬 솔로몬 성전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숲의 집이라 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은 보고이자 무기고이자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숲의 집의 무기를 보았습니다.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다는 것을 주께서 보셨나이다. 벽을 수리해야했습니다. 아래쪽 못의 물을 모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예루살렘 가옥의 수를 세시고 그 집을 헐어 성을 강화하셨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웅덩이의 물을 담기 위해 두 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히스기야가 행한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605년 사르곤이 죽은 후, 산헤립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히스기야는 지역 반란을 이끌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벽은 내부 교차 벽이 있는 양쪽에 두 개의 벽이 있는 표준 군사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집의 안쪽 벽 바로 앞에 집을 지었습니다. 전쟁 중에 토지수용권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 어느 곳에서나 즉시 성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가지 이유로 그 집을 헐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그 집에서 나온 잔해를 사용하여 이 공간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 건축가들이 배운 것은 두꺼운 벽이 하나만 있으면 공성퇴가 이 벽에 부딪힐 때 충격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벽을 뚫고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반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잔해가 공성추의 충격을 흡수하고 내벽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강화하기 위해 집을 헐었습니다. 그도 바로 그 사람이니라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샘이 있었고 또 샘이 있느니라.

저거에서 한 시간에 몇십만 갤런의 물이 나오는지 들은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곡 아래에 있었고, 성벽은 여기 언덕 꼭대기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터널을 여기 아래를 거쳐 여기 아래쪽 끝에 있는 수영장까지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는 그를 선한 왕으로 말하고, 역대기는 그를 선한 왕으로 말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무엇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그는 자기를 만드신 분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그는 모든 물질적인 물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Vision of Valley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백하자면, 이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다소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실제 역사 쓰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읽은 역사가가 실제 역사 쓰기에서 말한 것 중 하나가 영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잘못된 일을 할 수 없는 회칠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일단 그것을 보면 누군가가 역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하고, 자신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점을 보이는 누군가를 본다면,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그리고 그 역사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표시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금으로 도금된 영웅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결함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사야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8장과 39장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범한 인간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 메시아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슬프게도 실망하게 될 거야.

그들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13절, 14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응. 악당들의 단기 실종. 응, 응, 응, 응.

그리고 꽤 유명한 마지막 구절인 13절은 어떻습니까? 왜? 응. 누가 알아? 할 수 있을 때 살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맥주 제조 업체에 뛰어든 것을 용서하세요. 하지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만 돌아다녀 보세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하지 않다. 이제 잠시 여기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만드신 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실제로 자신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 기도하다. 괜찮은.

신뢰하다. 제 말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 6시에 창조주를 바라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많은 발을 들이고 싶습니다. 지도를 요청합니다. 사고방식을 설정합니다.

충실. 응. 경계하고 있습니다.

청취. 예. 오늘은 무엇을 원하세요? 나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와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그것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때로는 일종의 만트라로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 예.

장군의 깃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신론자와 참호는 없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응. 응. 응.

그리고, 그리고 주님, 결국에는 당신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승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참호에서 뛰어내려 돌격할 누군가가 필요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전망을 키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고 있지 않은 일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죽습니다. 나는 앞을 내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관점에서 완전히 즐겁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기 계획에 들어맞을 수 있는가?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 것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인생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싶다. 인생은 너무나 확실해서 오늘은 기분이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에서 그것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야. 아니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히스기야가 행했어야 했던 일이었음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태도, 다른 생각, 다른 계획으로 그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괜찮은.

그런데 14절은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나타나셨느니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나는 당신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는 복수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모른다. 어쨌든, 와.

이 죄악은 네가 죽을 때까지 속죄되지 못할 것이다. 왜 속죄되지 않습니까? 여기 12장과 13장에서 방금 말한 내용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의적인 거절이군요. 괜찮은.

고의적인 거절이군요. 그것은 고의적으로 자신을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 속죄받지 못할 이 죄악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거부합니까? 예.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음 버번 병을 찾고 있어요.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우리는 이러한 참고 문헌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하여 용서함을 받도록 기도하라. 글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 많은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등을 돌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종종 그것을 라디오 수신기에 비유했습니다. 이 방은 클래식부터 R&B까지 음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들리면 손을 들지 마십시오. 왜 안 돼? 왜냐면 우리에겐 수신기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수신기를 부숴서 듣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 히브리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작년에 암으로 사망한 유명한 무신론자 크리스토퍼 도킨스가 생각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오만함.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은 바로 가세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른쪽? 수신기를 박살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내일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심각한 것, 심각한 것.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령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성령님이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신화입니다. 좋아요.

그것은 모두 신화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당신이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수년 전에 숏 계좌 유지에 관해 말한 누군가의 말의 필요성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당신이 잊어버린 지점이 오게 됩니다. 짧은 계좌를 유지하세요, 짧은 계좌를 유지하세요.

저는 수년 동안 항상 학생들과 함께 일했는데, 누군가가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니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면 당신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두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위험이 발생합니다.

좋아요, 15절부터 25절까지의 나머지 부분에는 제가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중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이 말을 항상 사용합니다. 그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신학을 제시한 다음 그림을 그리거나 그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나 무언가를 말합니다.

여기 셰브나가 있습니다. Shevna는 거의 확실하게 총리입니다. 집안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거의 확실하게 그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자신의 무덤 건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내일 우리가 죽을 것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사야는 "그래, 너는 죽을 거야, 알았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외국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셰브나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인질로 잡힐 것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앗수르의 봉신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가나안의 모든 나라 중에서 오직 유다만이 자기 본토의 왕이 보좌에 앉은 채 준독립을 유지한 것이 사실이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아시리아의 봉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항상 인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인질로 잡힌 사람 중에는 고위 관리인 셰브나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사야는 당신이 외국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짓고 있는 크고 화려한 무덤에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종 엘리아김이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36장에 와서 아시리아 장군을 만나기 위해 출발하는 사절단을 보면 엘리아김이 총리이고 쉐브나는 서기관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은 그 때가 이르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3~4년이 지난 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기 22장 23절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를 말뚝처럼 안전한 곳에 묶어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아버지 집에서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과 그 후손이 그에게 달려 있을 것이며 잔으로부터 술병까지 모든 작은 그릇을 나누어 줄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굳게 매어 두었던 말뚝이 무너지리라. 그것은 찍혀 넘어질 것이며, 그 위에 있던 짐은 끊어질 것이다. 이제 제가 여기서 묻는 질문은, 당신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이 보장된다는 점에 대해 이 단락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당신의 성공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당신의 성공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해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만약 엘리아김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증거가 그가 그랬다는 것이라면, 그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좀 조용해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엘리아킴의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것은 확실히 아주 아주 가능합니다. 내 요점은 단순히 우리가 신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다. 그건 어렵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약 3년 반 동안 Asbury College였을 때 Asbury College의 총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중 하나는 '그것에 관한 것이 무엇이었나요?'입니다. 제 생각에 그 중 하나는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제 인생의 그 시점까지 제가 정말 정말 노력하고 성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대학의 총장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고 싶어하는데 나는 실패했어요. 그것이 길고 짧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위해 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방식으로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당신께 드리면 그 결과가 즐겁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게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다. 그건 어렵다. 좋아, 우리는 여기서 서둘러야 해.

23장은 여러 면에서 하나의 큰 그래픽 삽화입니다. 내가 각주에서 말했듯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해안에 있는 두 개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남쪽은 두로이고 북쪽은 시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종의 쌍둥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다른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산, 레바논 산맥은 해안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산의 손가락이 바로 해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육로로 남북을 여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산들 사이에는 거대한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기 가파른 계곡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반레바논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기 다마스커스는 레바논을 쉽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공군력이 있는 날에도 육지에서는 다메섹에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는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무역에서 동부 지중해를 통제했습니다. 이들은 세계사에서 배운 페니키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대의 튀니지인 카르타고에 식민지를 세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인들을 매우 아슬아슬하게 추격했습니다. 로마인과 카르타고인은 로마인이 마침내 그들을 손에 넣기 전까지 거의 150년 동안 싸웠습니다. 한니발은 페니키아인입니다.

그는 카르타고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두 도시는 지중해 동부의 해상 무역에 대한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곡식과 금이 있었지만 재목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해상 운송에서도 형편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은 그들의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뉴스입니다.

배는 서쪽에서 오고 있다. 다시스는 거의 확실하게 스페인의 동부 해안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이어에 있는 그들의 모항으로 돌아올 예정이고 타이어가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 그 소식은 지중해 가장자리를 따라 저 바깥에 있는 섬인 키프로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9절 23:9을 보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모든 영광의 오만한 교만을 더럽히고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욕되게 하려고 이를 작정하셨느니라.

그 주제는 책 전체에 걸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을 믿겠습니까? 왜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0이 될 것입니다. 왜 나라들의 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다시 5주 후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여러분이 우리와 같은 세속적인 국가의 분노를 일으키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하면 됩니다. 아니 아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의 계획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의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행운을 빕니다. 하지만 책 전체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단순히 지정학적 힘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이제 즉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네티컷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어나는 일이 우연의 결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 일어난 일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단발? 종교 지도자들을 분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길을 따릅니다. 정치지도자들과 같은 생각인가? 매우 그렇다. 이사야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인 미가는 정치 지도자들, 즉 지도자 전체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귀족, 선지자, 제사장을 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부패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뇌물을 위해 일합니다. 따라서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다소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 후에는 당신을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약간 웃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 학자들은 항상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맙소사,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아,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응,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응, 없었어. 나는 당신이 얻은 것을 생각하며 이전에 말했듯이 나의 모든 원래 생각은 Dennis Kinlaw 또는 CS Lewis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Kinlaw 박사는 영원한 지혜이자 관통하는 끈인 Sophia Perennis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문화는 곳곳에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흐르는 스레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이 진리의 실타래를 대표하는 소수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성서적 종교, 그렇죠. 이스라엘 종교, 내 생각엔 그게 이스라엘 종교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유다 가운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사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음, 난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일종의 직선이 진행된다는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이 엄청난 폭발이 시내산에서 정점에 달했고 그 후 시내산 정상까지 거의 똑같이 엄청난 쇠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다윗과 함께 거의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아래로, 유배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새로운 탈출로 봅니다. 우리는 이 비행기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 알았어.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 자. 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는 존 오스왈드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2장과 23장, 11회기입니다.